

정시 미적분 유리...문과생 설 자리 줄어

‘확통’보다 3~6점 높고 국어는 난이도 하락...선택과목 유불리 해소 어려워 이과생 인문계열 교차지원 급증...문이과 통합형 수능체제 논란 커질듯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자연계열 진학을 위해 수험생들이 '미적분'을 택한 학생들이 정시모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어영역이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와 달리, 17일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가 다소 쉬워진 반면 수학은 여전히 변별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문계열 진학을 원했던 '문과생'들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창의적 통합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교육과정도 개편되면서 지난해부터 수능 또한 문이과 통합 체제로 개편된 것인데, 결국은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시험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도 특정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다른 선택과목보다 높은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점수는 평균점수와 비교해 자신의 점수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나타내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을수록 최고 득점자의 표준점수는 높아진다.

지난해부터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이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바뀌었는데 국어영역에서는 작년 수능과 모의평가, 올해 모의평가 모두 모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

준점수 최고점이 '화법과 작문'보다 2~5점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학 역시 '미적분'을 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3~6점 높았던 것으로 입시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실 이 문제(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통과목에 응시하는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 전체 점수(영역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연계열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계속 높게 나오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인문계열 수험생들의 설 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높은 수학 점수를 바탕으로 인문계열에 교차지원하는 경우가 급증해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입 정시지원전략 설명회 예약자 17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3 이과생 851명 가운데 63.0%인 536명이 인문계열 교차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합수능 2년차인 올해 이과→문과 교차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천118명 가운데 67.2%(751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는 국어영역보다 수학영역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돼 이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작년에는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까지 올라갈 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는 문과 학생들의 버팀목이 됐지만 올해는 수학이 더 어려워 문과 학생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국어영역에서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대사양 관련 17번 문제도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이런 지문이 출제되고 이과생의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점수차는 작년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3점이라고 하면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분포도 중요하다"며 "내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작년 수능 기준 수학영역 1등급(상위 4%) 안에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대표는 "올해는 (출제진이) 동일영역 내 선택과목간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통합수능이기 때문에 국어·수학 사이의 밸런스도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과기한림원 신입 정회원 3명 배출

민정준·김재국·국현 교수...2023년 1월13일 입회식

전남대학교가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에 정회원 3명을 한꺼번에 배출했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과기한림원은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5개 분야 28명의 정회원을 선출했다. 전남대에서는 민정준(57·의과대학)·김재국(56·공과대학), 국현(55·의과대학) 교수가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전남대 출신으로 모교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현 교수는 부친에 이어 부자(父子)가 정회원에 올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10명, 고려대 4명에 이어 전남대가 세 번째로 많은 수를 배출했다.

민정준 교수(학의학교실)는 UCLA와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분자영상(molecular imaging)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한 후 세계분자영상학회 석학회원에 선정됐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암 치료 기술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김재국 교수(신소재공학부)는 미국 오스틴의 텍사스대학 박사과정 중에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 전극소재분야에 나노개념을 도입, 해당 연구 성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영향력지수 43.070)에 발표했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중성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NMC 양극활물질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미국 GM, 한국 LG 등에 기술이전 했다.



민정준



김재국



국현

국현 교수(약리학교실)는 전남대 의대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 집중 연구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국 교수는 과학기술한림원 창립 초창기부터 참여한 원로회원 국영중 전남대 명예교수(약리학교실)의 아들로 부자(父子)가 나란히 정회원으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갖게 됐다.

과기한림원은 매년 회원심사위원회를 통해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석학들을 정회원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과학기술 관련 학술, 국제 교류 등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안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과기한림원 정회원 선출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책임저자(교신저자)로 발표한 대표논문 10편에 대해 연구업적의 수월성과 독창성, 학문적 영향력과 기여도가 중점 평가된다.

과기한림원은 내년 1월 13일 '2023년도 신입 정회원 입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한림원 정회원 선출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책임저자(교신저자)로 발표한 대표논문 10편에 대해 연구업적의 수월성과 독창성, 학문적 영향력과 기여도가 중점 평가된다.

과기한림원은 내년 1월 13일 '2023년도 신입 정회원 입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재학생 대상 'GU 챌린지업 창업캠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GU 챌린지업 창업캠프'(사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대 LINC 3.0사업단이 마련한 이번 캠프는 창업동아리를 비롯해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3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아이디어 공유와 특강 등의 내용으로 펼쳐졌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함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며 창업 역량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선식 광주대 LINC3.0사업단장은 "고도화된 창업아이디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가를 발

굴할 예정이다"며 "교내 창업생태계 조성 및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융합형 스타 창업가 발굴을 위해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며 아이템 개발을 위한 활동과 멘토링,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법적 권리로 등록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특허출원과 창업기업 등록의 성과를 얻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사라왁 말레이대학교 우수인재양성 MOU체결 논의

사라왁 말레이시아대학교(UNIMAS, University of Malaysia, Sarawak) 방문단이 지난 17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를 방문했다.

아흐마드 하타 라시트(Ahmad Hata Rasit) 부총장을 단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박상철 총장 예방 및 손완이 국제교류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 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교류협약의 MOU 체결 논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또 조규정 문화예술체육대학장 및 최영화 미디어영상공연학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대학 유사학과 간 교수·학생 교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이후 미디어영상공연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실습실, 강의실 등 학과 교육 현장과 캠퍼스 전반 시설을 둘러봤다.

방문단은 호남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쾌적한 학업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에 양 대학간 실질적 교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여 서로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흥 백양초 5·6학년, 승마 기승능력인증 포니 등급 합격

전남도교육청은 고흥 백양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승마 관련 인증인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에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은 초보 승마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말에 대한 기초 상식과 코스 이행, 말기승 30회 이상일 경우 1등급, 20회 이상이면 2등급이 부여된다.

백양초는 학교특색사업으로 1년 동안 승마 체험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체험 초반에는 말의 크기에 놀라 무서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하면서 교육 종료를 앞두고 이번 시험에 도전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2년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 덕분에 백양초를 졸업한 학생들은 승마에 대한 즐거움 추억과 함께 승마인으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승마 의욕을 가지고 평생 취미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승능력인증제 검정시험 중인 백양초등학교 학생. <전남도교육청 제공>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